

P16. 농촌생활지표에 관한 조사 연구

- 교육 및 교양부문을 중심으로 -

조영숙*, 이한기, 박은식, 고정숙, 조록환, 황대용, 강경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생활수준 진단과 농촌주민들의 의식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래 농촌생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지표 및 표준화된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식통계 중 농촌생활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농촌생활연구소에서는 1994년 농촌생활지표를 인구 및 사회,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가정경제, 교육 및 교양, 여가생활, 가족생활 등 8개 부문을 기본틀로 하여 1994년,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농촌생활지표』 집을 발간한 바 있고, 2000년부터는 이들 지표 중 기존 통계자료 이용이 불가능한 82종의 지표항목에 대해 3년 주기로 직접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2002년에 조사한 주거 및 환경, 가정경제, 교육 및 교양부문 중, 교육 및 교양부문의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 : 농촌생활지표조사의 조사지역 및 대상은 층화집락다단계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전국 88개 시군 187개 행정리 1,870가구로 하였고, 응답자는 가구주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는 2002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교육 및 교양부문의 조사내용은 자녀기대학력, 자녀방과후 활동, 이촌취학자녀 및 거주형태, 미취학자녀여부 및 농번기자녀양육 등이었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한글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본 조사의 결과분석에서는 추출확률을 고려한 승수(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 농촌부모가 기대하는 자녀기대 학력수준은 아들의 경우 석·박사 23.3%, 대학 46%, 능력대로 27.9%였으며, 딸의 경우는 석·박사 20.2%, 대학 48.0%, 능력대로 27.0%로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고등학생의 자녀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혼자 공부 49.0%, 교과관련학원 19.9%, 취미관련 학원 15.2%, 개인과외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의 차이로는 교과·취미관련 학원, 개인과외 등의 비율이 읍지역에서 높고, 친구와 공부, 혼자 공부하는 비율은 면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여부별 차이로는 혼자 공부하는 비율이 비농가보다 농가에서 높았으며, 교과·취미관련 학원, 개인과외 등의 비율은 비농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촌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은 해당 농촌가구 중 24.9%였고, 이촌취학 자녀는 읍지역보다 면지역에서 더 높았으며, 영농여부별 차이는 비농가보다 농가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촌취학 자녀의 거주형태로는 자취 45.9%, 기숙사

26.8%, 친척집 거주 11.3%, 하숙 9.5%였으며, 지역별로 비교하면 기숙사, 친척집 거주는 읍지역에서 많은 반면 하숙, 자취는 면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여부별로 비교하면 자취는 농가에서 높았고, 기숙사, 친척집은 비농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10가구 중 1가구꼴인 10.3%였으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는 면지역보다 읍지역에서, 농가보다는 비농가에서 많았다. 농번기 자녀양육자는 육아시설 34.9%, 부모 27.4%, 가족/친인척 22.6%, 형제/친구와 논다 8.2%였다.

결론 : 농촌지역 중에서도 특히 농가에서 가구소득에 대한 불만이 높고 장래 소득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요인으로 이러한 어려움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은 교육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농가자녀 과반수 이상이 방과 후 혼자 공부하고 있었으며,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는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농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초·중·고교의 통폐합은 농가의 교육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탈농이촌현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교육은 미래지향적 속성으로 인해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는 주된 영역 중의 하나이므로 농촌 미래세대의 삶의 질과 복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촌교육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주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농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농업·농촌의 가치와 그것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